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척도 개발*

손 영 철** · 유 정 이***

- I. 서론
- II. 자기결정론에 의한 탈북동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국문요약

본 연구는 Deci의 동기유형 분류체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309명(남자 183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문항 추출을 위한 개방형 질문과 집단 인터뷰, 문헌연구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생한 언어적 진술이 담긴 105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전문가 내 용타당도 검정을 거쳐 63개의 질문지를 완성한 후 북한이탈주민 258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2개 요인구조 38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후 내적타당도를 높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8개 문항을 삭제하고 30개의 탈북동기 최종 척도를 도출하였다.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척도의 요인구조는 자율적 동기, 타율적 동기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척도 개발이러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동기 척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연구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척도, 자기결정성

* 본 논문은 안양대학교 교육학 박사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
** 한국상담교육연구소 대표
*** 안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남북한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사회 각층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연구는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특성과 관련지어 특정한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집중되었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¹ 심리적 갈등,² 방어기제,³ 적응스트레스⁴와 같은 정신 병리적 증상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능력 및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시사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⁵ 탈북과정에서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탈북민의 취약성 또는 병리적 측면과 더불어 역량과 강점, 동기와 연관된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⁶

인간행동의 동기는 에너지, 지향성, 일관성, 유연성 등 행동 활성화 및 행동 의도와 관련되어 있고,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조절 기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⁷ 동기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조절하며 대부분의 행동을 이루는 동인이 되므로 Deci와 Ryan은 동기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각 사람의 행동은 매우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고 밝혔다.⁸ 전통적으로 동기는 내적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되어 왔는데, 내적동기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은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의 흥미와 가치에 따른 것이라 느끼는 반면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은

¹ 박철옥,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신현균·김희영·임지영,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9권 3호 (2010).

²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자료집』, 2000년 1호 (2000), pp. 67~92.

³ 조영아·김연희·유시은,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1호, pp. 329~348.

⁴ 신행우·이중한·한성열·허태균·채정민, “이문화권 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1호 (2004), pp. 147~163.

⁵ 임소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예측모형: 심리적 외상-회복력 통합모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⁶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2009), pp. 189~213.

⁷ E. L. Deci and R. M. Rya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S.: University Rochester Press, 2002), p. 231.

⁸ *Ibid.*, p. 234.

자기 외부에 있는 이유로 인해 행동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렇듯 동기란 모든 문화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 된다.⁹ 어떤 행동의 동기가 외적 요인 즉 환경의 압력이나 요구 혹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행동임을 자각하고 그 행동으로부터 보람과 만족을 얻는다면 이와 관련되어 훨씬 더 높은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탈북행동을 어쩔 수 없는 도피수단으로 선택한 사람보다 본인의 내재적 동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남한사회 적응에 유연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북동기가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연구가¹⁰ 존재하지만, 탈북동기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탈북동기를 이해하고자 해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 ‘식량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자유를 찾아서’, ‘북한체제가 싫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족을 따라서’, ‘가족을 찾거나 결합을 위해서’, ‘신변위협’ 등으로 탈북동기를 분류하고 있다.¹¹ 또한 문숙재 외¹²가 중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주요 탈북동기 및 탈북동기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배가 고파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해서’, ‘북조선에 있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탈북할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나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등의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탈북동기를 탈북민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연구를 위한 개념화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허지연은 탈북동기를 정치형, 경제형, 사회형, 미래형으로 유형 분류하였는데¹³ 각각의 문항을 단 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있어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결정성과 동기의 내적/외적 소재의 차원에서 조망하여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탈북동기척도가 개발될 수 있다면 무엇이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탈북행동을 감행하게 되는 요인인지를 탐색하는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 방안을

⁹ *Ibid.*, p. 235.

¹⁰ 정정애·손영철·이정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¹¹ 남북하나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pp. 82~83.

¹²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p. 145.

¹³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 5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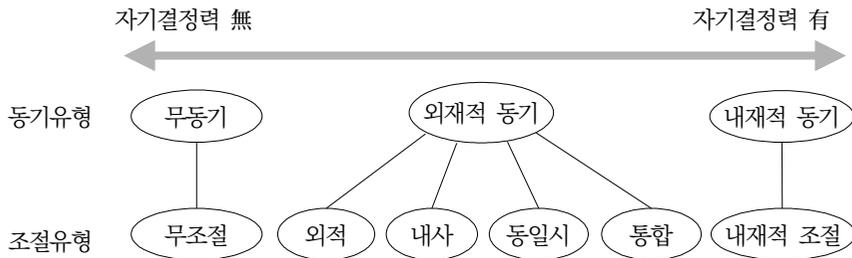
확장시킬 수 있는 주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도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동기유형이 나타날 것인가? 나타난다면 그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자기결정론에 의한 탈북동기

Deci와 Ryan의 자기결정론의 유기체통합이론에서는 행동통제의 소재에 따라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그리고 아무런 동기도 없는 무동기로 분류한다.¹⁴ 유기체통합이론에서 제안한 동기유형의 분류체계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이를 탈북민의 동기와 관련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유기체 통합설에서 제안한 동기의 종류



참조: Reeve, J.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London: John Wiley & Sons, 2014)에서 수정하여 인용.

1.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탐색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신기함과 도전을 추구하는 생득적인 경향성에서 비롯된 동기이다. 이는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로서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해 내적 즐거움 혹은 재미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⁵

¹⁴ E. L. Deci and R. M. Rya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 235.

¹⁵ R. M. Ryan and J. P. Connell,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내재적 동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동기로 최고의 자기결정성을 갖는 자율적인 동기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은 사고가 경직되지 않아 정보처리가 효율적이며 이해력이 높고,¹⁶ 일에 대해 싫증을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창의성이 높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향이 있다.

2. 외재적 동기

Ryan과 Deci는 외재적 동기를 통합적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내사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그리고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완전한 자유의지와 자기결정 하에 행동하는 것을 내재적 조절로, 완전히 외적 영향을 받는 행동을 외적 조절로 구분하는데 행동원인이 행위자의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 대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외적 조절로 구분한다.

가. 통합적 조절

통합적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에서 내재적 동기와 가장 가깝다.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내부 세계로 옮겨놓는 것 중에서 자아에 동화(assimilation)된 정도가 가장 큰 것을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긍정적 생산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통합적 조절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동일시 조절과 통합적 조절이 확연히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

psychology, Vol. 57, No. 5 (1989), p. 749.

¹⁶ J. Reeve,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London: John Wiley & Sons, 2014).

나. 동일시 조절

동일시 조절은 부여된 목표나 개인적인 중요성에 근거하여 스스로 그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동기를 말한다. 행동 자체에 대한 기쁨이나 자기만족보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 중 하나로 분류되어진다. 동일시 조절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예를 들어, ‘내가 남한사회의 정치체제를 경험하기 원하니까’,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가 중요하니까’ 등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이므로 외재적 동기에 속한다.

다. 내사 조절

내사조절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동기라 할 수 있다. 내사조절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진심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부모나 교사의 공부하라는 반복된 잔소리에 세뇌되어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나 공부를 게을리 하면 양심의 가책이 들거나 불량한 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불편하여 공부하는 것은 내사 조절의 예이다. 내사 조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체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사된 대상이 주체를 조종하고 있다. 내사 조절에 의한 행동은 흥미와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싫증나기 때문에 수행이 떨어진다.

라. 외적 조절

외적 조절은 칭찬, 처벌, 보상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행동이 조절되는 것이다. 즉 자기결정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권위자들이 제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조절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행동이 조절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적인 원인에 의해 조절되는 사람은 외적 요인이 없어진다면 행동을 시작하기 어렵고 외적 요인이 제거된다면 그 행동을 중단한다. 학습 동기 이론에서도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질책받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것, 시험 기간이 닥쳐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제출시한이 임박하여 숙제를 하는 것 등이 외적 조절에 속한다.

3. 무동기(amotivation)

무동기는 자기결정성 연속선상의 한쪽 극단(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위치)에 위치하는 동기 유형으로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동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상태에서,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불능감에 빠져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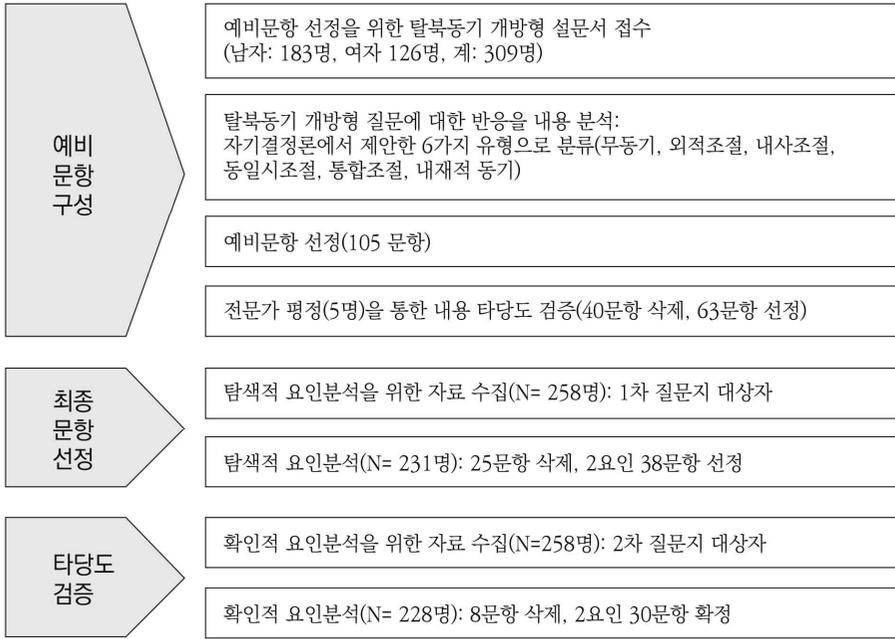
무동기 상태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는 탈북하려는 의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탈북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의도 없이 탈북하게 된 경우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쉽게 동기가 부여되지도 않고 심지어 외재적 동기도 지각하지 못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연구절차를 개괄하면, 먼저 검사문항을 제작하기 위해 2017년 2월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동기에 관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응답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6가지 동기 유형으로 분류하여 105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시 전문가 5인의 타당도 평정을 거쳐 63문항을 선정하였으며 탈북민 258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23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반영하여 2요인 38문항을 선정하였고,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탈북민 258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228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30문항을 확정하였고, 선정된 최종문항을 활용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탈북동기 척도 개발과정



2. 연구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동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개념과 행동특성을 다양하게 수집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통일부 하나원 교육시설에서 교육중인 교육생 200명(남자 79명, 여자 121명), 하나원 수료 이후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서 정착과정 중인 58명(남자 35명, 여자 23명)으로 모두 258명이 참여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은 하나원 교육생 198명(남자 89명, 여자 109명)과 정착과정 주민 60명(남자 37명, 여자 23명)으로 모두 258명이 참여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토대로 비교적 중요한 적응상의 문제(정신병리, 일탈, 장기실업)를 일으키지 않으며 적응유연하다고 판단된 북한이탈주민 10명에게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남자 6명, 여자 4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9세(연령범위: 20세-51세)였으며 하나원 수료후 남한사회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대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N	%	N	%
성별	남자	114	44.2	126	48.8
	여자	144	55.8	132	51.2
	20대	10	3.8	9	3.3
	30대	74	28.6	75	28.7
	40대	122	47.2	124	47.4
	50대	51	19.7	51	19.7
연령	무응답	1	0.3	1	0.3
	인민학교 졸업 이하	35	13.5	33	12.7
	고등중학교 졸업	162	62.7	168	65.1
	전문학교 졸업	29	11.2	28	10.8
	대학교 졸업 이상	28	10.8	25	9.6
	무응답	4	1.5	4	1.5
학력	노동자	62	24.0	59	22.8
	농민	39	15.1	36	13.9
	학생	25	9.6	29	11.2
	부양(무직)	38	14.7	45	17.4
	사무원	28	10.8	25	9.6
	전문직(교원, 연구원)	30	11.6	28	10.8
북한 최종 직업	장사(외화벌이 포함)	3	1.1	5	1.9
	군인	3	1.1	4	1.5
	예술, 체육	4	1.5	4	1.5
	관리직(지도원)	15	5.8	12	4.6
	봉사원	11	4.2	11	4.2
	기혼(함께 거주 및 모두 생존)	58	22.4	58	22.4
결혼상태	(부부 중 한명 사망)	33	12.7	33	12.7
	(부부 중 한명이 북한, 중국 거주)	25	9.6	25	9.6
	미혼	30	11.6	30	11.6
	이혼	26	10.1	26	10.1
	동거	59	22.8	59	22.8
	무응답	27	10.4	27	10.4

3. 자료 처리

탈북동기 척도 개발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비 문항 선정 과정에서 얻어진 개방형 응답 자료를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안한 6가지 동기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개방형 자료의 응답은 한명의 응답자가 하나 이상의 응답을 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별적인 응답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설문 응답 가운데

그 의도나 내용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자가 분류한 후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확정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각 진술문을 구분한 후 연구자와 교육심리학 박사 1인, 박사과정생 1인이 함께 진술문을 통합, 분류하는 형태로 재구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탈북민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와 통일부 정책지원과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측정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해당 측정문항이 탈북민의 동기측정에 타당한지 평가하였고, 전문가 합의에 의하여 3점 미만의 문항을 삭제하였으나, 타당도 평정 후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타당도가 낮지만 문항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포함하여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비문항은 사전 설문과 내용 분석, 타당도 검증 절차를 통해 개발된 것이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통계, 신뢰도, 상관분석 결과 확인 등을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또한 각 요인의 문항 내적 합치도를 판단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AMOS 1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요인구조의 단일차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적합도의 경우 카이스퀘어 값과 CFI, IFI, RMR, RMSEA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탈북동기 요인구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탈북동기 척도의 개발에 필요한 63개 예비척도 문항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25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에는 추출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독립적일 경우 직각회전을 주로 사용하고, 요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사각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¹⁷ 사회과학에서는 다루는 현상들이 대부분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

¹⁷ L. R. Fabrigar, D. T. Wegener, R. C. MacCallum and E. J. Strahan,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Vol. 4, No. 3 (1999).

므로 사각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¹⁸ 또한 사각회전 방법 중 프로맥스(Promax) 방법은 요인 간 상관을 전제한 조건 하에서 가장 간명한 모형을 도출하므로¹⁹ 본 연구에서는 사각회전 방식의 프로맥스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나타내는 요인의 수는 13개로 확인되었다. 요인 수에 따른 고유값과 누적분산비율은 <표 2>에 제시하였다. 고유치의 감소폭은 요인수가 2개를 넘어갈 때 고유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스크리 도표를 살펴본 결과 요인의 수가 2개인 지점 이후부터 경사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인구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누적분산비율이 최소한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볼 때,²⁰ 2요인의 경우 누적분산비율이 39.02%로 40%에는 약간 미치지 못 하였지만, 일부 공통성이 낮거나 교차타당성의 문제가 되는 문항을 제거한다면 분모의 수치가 낮아져 설명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2요인으로 정의하여 타당성이 높은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한다면, 누적분산비율이 40%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2> 고유치 검사 결과

요인 개수	고유치(eigenvalue)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1	17.91	28.43	28.43
2	6.67	10.59	39.02
3	2.84	4.50	43.53
4	2.43	3.85	47.38
5	1.94	3.08	50.46
6	1.82	2.88	53.34
7	1.46	2.32	55.66
8	1.39	2.21	57.87
9	1.35	2.15	60.02
10	1.28	2.03	62.05
11	1.16	1.84	63.90
12	1.10	1.74	65.64
13	1.02	1.61	67.25

¹⁸ 김주환·김민규·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p. 70~153.

¹⁹ R. D. Hetzel, "A Primer on Factor Analysis with Comments on Patterns of Practice and Reporting," *Advances in social science methodology*, Vol. 4 (1996), pp. 175~206.

²⁰ R. L. Gorsuch,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LEA, 1983).

따라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다음으로 공통성이 가장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공통성이 가장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공통성은 .30 미만으로 낮은 문항 11개 항목(5번, 6번, 13번, 17번, 18번, 37번, 38번, 40번, 52번, 56번, 61번)을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탐색적인 연구가 아닌 경우는 .40~.50을 기준으로 요인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탐색적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항목의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 .30 미만인 표본만 제외하였다.

그리고 남은 항목 중에서 타율적 동기의 내용과 유사한 문항인데 자율적 동기의 요인 적재값이 더 크거나(7번, 31번, 57번) 자율적 동기의 내용과 유사한 문항인데 타율적 동기의 요인 적재값이 더 크거나(32번), 두 요인의 적재량의 차이가 .10 미만이거나(10번, 15번, 19번, 22번, 41번, 62번) 해당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40을 초과하는 문항(36번, 60번, 63번) 총 13개는 교차타당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Ferguson은 가장 큰 요인의 적재량과 두 번째로 큰 요인의 적재량 간 차이가 .20 이상이어야 교차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하였지만,²¹ 불필요한 문항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 두 요인적재량 간 차이가 .10 미만인 항목만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표 3>과 같이 25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3> 문항검토 결과 삭제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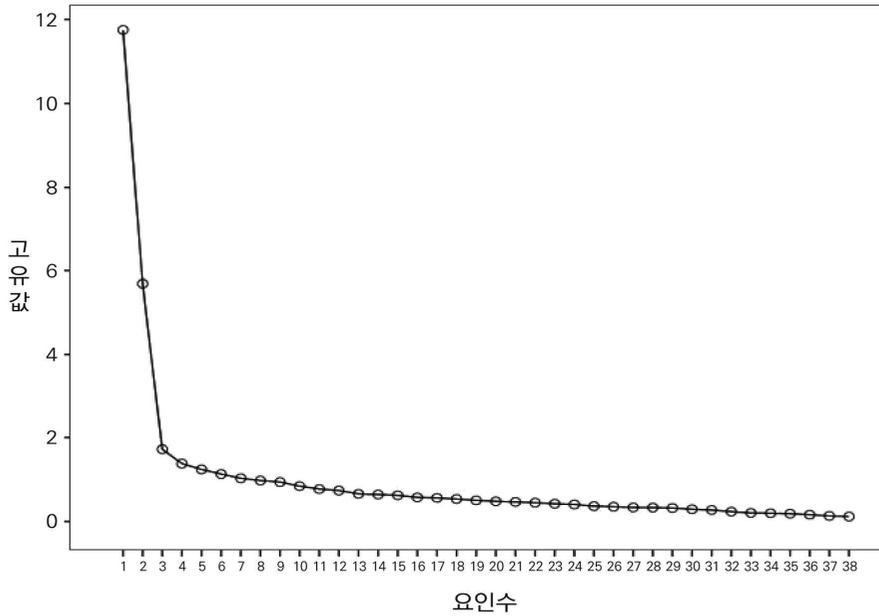
요인	문항	내용	삭제이유
1 요인	24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낮은 요인적재량
	5	직업을 얻기 위해	
	13	새로운 도전(탈북시도) 자체가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낮은 공통성
	17	돈을 벌기 위해	
	37	남한의 경제정책에 호기심을 느껴서	
	38	내 후손의 미래를 위해	
	7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살기 힘들어서	교차타당성
	15	남한사회의 정치체제를 경험하기 원하니까	
	19	여러 가지 부역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31	독재정치가 싫어서	
36	남한 드라마를 보며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²¹ E. Ferguson and T. Cox,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users' guide,"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Vol. 1, No. 2 (1993), pp. 84~94.

요인	문항	내용	삭제이유
	41	북조선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57	북한의 정치체제가 싫어서	
	60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62	신변의 안전을 위해	
	63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2 요인	6	살기 힘들어서 왔다	낮은 공통성
	18	화가 나서, 핏김에 오게 됐다	
	40	출신성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52	먹고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56	먹고 살기 위해	
	61	다른 사람에게 속아서 왔다(인신매매)	교차타당성
	10	나의 행동(탈북)이 틀렸는지 맞는지 알고 싶어서	
	22	탈북을 해야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2	남한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상의 항목 제거 과정을 통해 1요인 22개, 2요인 16개의 총 38문항의 탈북동기 척도 최종문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문항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주축요인추출 방법과 Promax 사각회전 방식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값은 .912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역시 유의한 수준($\chi^2=5094.92$, $p<.001$)으로 나타나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총 설명량은 45.88%로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도표는 <그림 3>에 제시하였고, 최종 선정된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최종 요인분석의 스크리 도표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후 최종 선정된 문항의 요인 부하량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공동성	항목-총점간 상관
26	나의 미래를 위해	.734	.205	.541	.684
54	내가 능력껏 일해서 살아보려고	.733	.100	.564	.687
14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해	.713	.140	.520	.668
35	내 마음껏, 내 능력껏 살고 싶어서	.712	.040	.555	.657
47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699	.156	.497	.661
2	꿈을 이루기 위해	.689	.186	.477	.652
34	탈북을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688	.227	.474	.658
11	북한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682	.257	.465	.674
27	새로운 것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665	.361	.461	.648
53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34	.318	.413	.632
23	천대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630	.191	.397	.598
21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서	.626	.272	.396	.611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608	.213	.369	.579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공통 성	항목 총점간 상관
3	탈북을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606	.200	.367	.589
46	독재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583	.180	.340	.571
9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서	.575	.313	.346	.552
43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569	.251	.327	.555
39	탈북을 해야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68	.316	.339	.555
49	미래가 불확실해서	.551	.296	.316	.528
48	한국정보를 접촉하며 남한 사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510	.384	.309	.513
12	남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생겨서	.508	.332	.286	.511
25	위험과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482	.356	.274	.479
44	빛을 갇을 수가 없어서 도망하기 위해	.244	.823	.679	.789
16	다들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분위기에 편승해서	.256	.775	.601	.743
30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을 따라 왔다	.261	.759	.576	.730
4	남들이 다 떠나는데 나만 남아있게 될까봐 불안해서	.319	.743	.556	.707
28	부모,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265	.698	.487	.672
29	먼저 넘어온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70	.691	.478	.668
45	남조선에 가서 가족을 만나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	.271	.689	.476	.665
51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191	.686	.473	.652
55	같이 탈북할 사람이 있어서 따라 왔다	.126	.667	.457	.641
8	전쟁포로 후손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166	.647	.422	.610
50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 왔다	.130	.645	.425	.616
33	공개처형을 목격한 후 불안하여 살수가 없어서	.328	.623	.403	.603
20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225	.618	.382	.603
58	무작정 도피하여 왔다	.178	.597	.357	.579
42	북한에서 살기 힘든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왔다	.295	.502	.269	.483
59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342	.497	.280	.484
	고유치	11.75	5.68		
	설명변량	30.92	14.96		
	누적변량	30.92	45.88		

2. 탈북동기 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미리 상정한 요인구조가 실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 CFI, IFI, SRMR,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각 지표들의 구체적인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χ^2 검정은 귀무가설이 데이터는 모델에 적합하다 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시켜야 한다($p > .05$). 하지만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는 모델을 채택할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오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² 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증분부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IFI)는 .90 이상, 표준화잔차제곱평균제곱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은 .10 이하, 원소간근접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는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06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고 있다.²³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38문항의 탈북 동기 척도의 적합도 검정 결과, $\chi^2=1745.517$, $df=664$, $p < .001$, CFI=.769, IFI=.771, SRMR=.082, RMSEA=.085 (90% 신뢰구간 .080-.090)로 CFI와 IFI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모형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분산추정치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준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향상을 도모한 결과, 최초 38개 문항에서 8개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30개 문항이 남았고, 그 최종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문항 삭제는 분산추정치가 커서 적합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SMC가 가장 낮은 항목부터 한 개씩 순차적으로 제외하였으며, 제외하였을 때 적합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낮은 항목부터 제외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최종 적합도 수치를 살펴보면 χ^2 검정에서 $\chi^2 = 1032.224$ ($p < .001$)로

²² 김주환·김민규·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pp. 154~210.

²³ R. D. Hetzel, "A Primer on Factor Analysis with Comments on Patterns of Practice and Reporting," pp. 175~206.

나타나 모형은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지만, 카이제곱 검정에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형을 채택할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므로, 표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오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⁴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인 χ^2/df 와, RMSEA, CFI, IFI, SRMR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으며, χ^2/df 는 3 미만으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수치를 보였고, RMSEA값은 .083으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CFI와 IFI는 각 .827, .828의 수치를 보였는데, .90에는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지만 때론 .80 이상도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판단한다.²⁵ 그리고 SRMR은 .074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북동기의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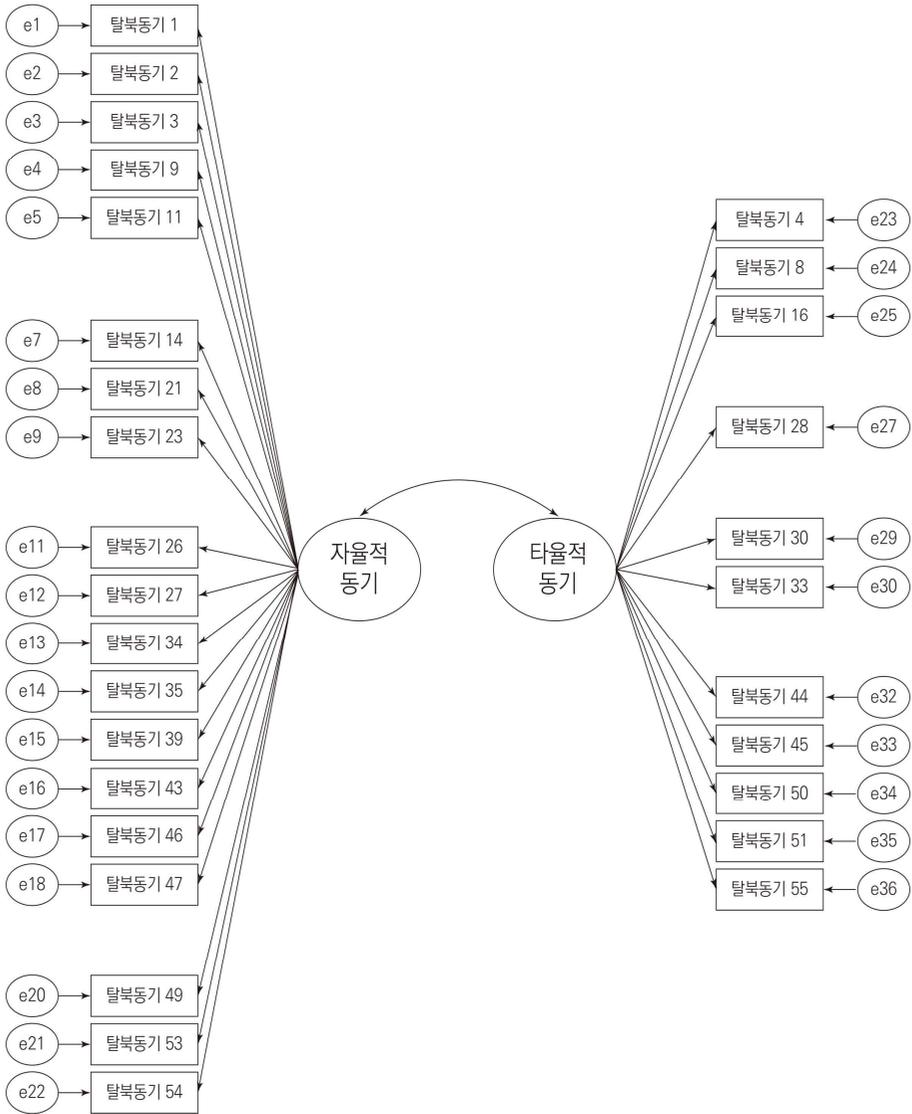
<표 5> 문항 제외 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문항수	χ^2 통계량				CFI	IFI	SRMR	RMSEA
	χ^2	df	p	χ^2/df				
30	1032.224	404	<.001	2.555	.827	.828	.074	.083 (.077-.089)

²⁴ 김주환·김민규·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pp. 167~208.

²⁵ R. D. Hetzel, "A Primer on Factor Analysis with Comments on Patterns of Practice and Reporting," pp. 175~206.

〈그림 4〉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6〉는 탈북동기의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이는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분산추정치와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준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향상을 도모한 결과이다. 최초 38개 문항에서 8개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30개 문항이 남았고, 그 최종모형은 〈그림 4〉에서 제시하였다. 내재-외재적 동기의 구분으로 시작한 요인구조가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의 구분으

로 변화하였으며 그 이유는 논의 부분에서 기술할 예정이다.

〈표 6〉 탈북동기의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 오차	C.R.	SMC	측정오차
자율적 동기	탈북동기 1*	1.000	.613			.376	0.621
	탈북동기 2	1.025	.697	0.116	8.810	.485	0.416
	탈북동기 3	0.904	.596	0.116	7.805	.356	0.554
	탈북동기 9	0.938	.583	0.122	7.658	.339	0.640
	탈북동기 11	1.091	.671	0.127	8.562	.450	0.543
	탈북동기 14	1.073	.723	0.118	9.060	.523	0.392
	탈북동기 21	0.803	.607	0.102	7.915	.368	0.414
	탈북동기 23	0.875	.634	0.107	8.193	.402	0.426
	탈북동기 26	0.930	.754	0.100	9.334	.568	0.246
	탈북동기 27	1.063	.656	0.126	8.410	.430	0.561
	탈북동기 34	1.044	.695	0.119	8.792	.483	0.437
	탈북동기 35	0.925	.732	0.101	9.135	.535	0.278
	탈북동기 39	0.827	.557	0.112	7.385	.311	0.568
	탈북동기 43	0.803	.570	0.107	7.520	.325	0.502
	탈북동기 46	0.920	.574	0.122	7.568	.330	0.643
	탈북동기 47	0.908	.711	0.101	8.946	.506	0.301
	탈북동기 49	0.857	.555	0.116	7.358	.308	0.617
	탈북동기 53	1.022	.608	0.129	7.929	.370	0.666
	탈북동기 54	1.008	.741	0.109	9.224	.550	0.311
타율적 동기	탈북동기 4*	1.000	.792			.627	0.500
	탈북동기 8	0.814	.645	0.080	10.168	.416	0.784
	탈북동기 16	1.049	.808	0.078	13.444	.652	0.494
	탈북동기 28	0.986	.698	0.088	11.190	.488	0.860
	탈북동기 30	1.086	.722	0.093	11.662	.521	0.911
	탈북동기 33	0.818	.606	0.086	9.461	.368	0.969
	탈북동기 44	1.055	.815	0.078	13.600	.664	0.474
	탈북동기 45	0.907	.663	0.086	10.505	.439	0.885
	탈북동기 50	0.903	.667	0.085	10.584	.445	0.857
	탈북동기 51	0.908	.683	0.083	10.901	.467	0.793
탈북동기 55	0.988	.677	0.092	10.780	.458	0.970	

주) *측정모형에서 관찰변수의 모수추정치를 처음 1로 고정시킨 값임.

3. 신뢰도 분석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신뢰도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항목의 항목 삭제시 신뢰도 계수도 감소하지 않으며, 항목-전체 상관도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적 일관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항목- 전체 상관	항목- 삭제시 α	Cronbach's α	
자 율 적 동 기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588	.927	.930
	2	꿈을 이루기 위해	.657	.926	
	3	탈북을 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596	.927	
	9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서	.561	.928	
	11	북한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666	.925	
	14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해	.673	.925	
	21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살고 싶어서	.602	.927	
	23	천대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606	.927	
	26	나의 미래를 위해	.702	.925	
	27	새로운 것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638	.926	
	34	탈북을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678	.925	
	35	내 마음껏, 내 능력껏 살고 싶어서	.680	.926	
	39	탈북을 해야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51	.928	
	43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553	.928	
	46	독재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566	.928	
	47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678	.926	
	49	미래가 불확실해서	.540	.928	
	53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01	.927	
	54	내가 능력껏 일해서 살아보려고	.698	.925	
타 율 적 동 기	4	남들이 다 떠나는데 나만 남아있게 될까봐 불안해서	.732	.905	.916
	8	전쟁포로 후손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612	.911	
	16	다들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분위기에 편승해서	.755	.904	
	28	부모, 형제,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667	.908	
	30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을 따라 왔다	.695	.907	
	33	공개처형을 목격한 후 불안하여 살수가 없어서	.575	.913	
	44	빛을 갈을 수가 없어서 도망하기 위해	.792	.902	
	45	남조선에 가서 가족을 만나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따라	.643	.910	
	50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 왔다	.641	.910	
	51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655	.909	
55	같이 탈북할 사람이 있어서 따라 왔다	.647	.910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척도를 제작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동기유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Deci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출발하여 설정한 6개 동기유형을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적용한 결과에서는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로 압축되었다. 즉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모형은 동일시조절, 통합적 조절, 내재적 동기를 자율적 동기로 범주화하고 무동기, 외적조절, 내사조절을 타율적 동기로 범주화한 2요인 모형이다. 이는 박병기 등²⁶이 제시한 동기유형의 분류체계상 2요인 모형a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자기결정성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동기요인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하는 동기유형의 개념구조는 튼튼한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여섯 동기유형의 뚜렷한 구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일까? 자기결정성의 여섯 동기유형을 제대로 측정해 내지 못하는 척도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토대를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개방형 진술을 문항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척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척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개념화 자체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자율적 동기요인의 내재적 동기는 그 일을 하는 자체가 기쁨인데, 실패하면 죽을 수 있는 탈북행동을 즐거움과 재미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유형 중 최고의 자기결정성을 갖는 동기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19개의 자율적 동기 문항 중 내재적 동기는 1문항만 포함된 점과 예비문항의 기술통계치에서 내재적 동기 문항이 낮은 평균값을 나타낸 점은 내재적 동기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높은 자기결정성을 갖는 탈북동기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인식의 차원이다. 여섯 가지 동기유형이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인간의 인식 차원에서는 변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타율적 동기요인에서도 개념화 자체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무동기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하려는 의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탈북을 결행하는 것으로 개념

²⁶ 박병기·이종욱·홍승표,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제19권 3호 (2005).

화되었다. 그러나 11개의 타율적 동기 문항 중 무동기 문항인 '30번: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을 따라 왔다', '50번: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 '55번: 같이 탈북할 사람이 있어서 따라왔다' 등과 같은 문항에서 보듯이 행동하려는 의지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탈북결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무동기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식차원에서 변별하기 어려운 문제는 타율적 동기요인에서도 나타난다.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려는 동기유형인 내사조절과 처벌을 피하거나 외부적인 어떤 요구나 혹은 보상 때문에 행동하려는 외적조절은 인식차원에서 변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는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 등 2요인으로 구별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개인이 두 가지 동기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에서 제시한 자율동기와 타율동기는 기존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의 동기 명칭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척도에서 제시한 자율동기와 타율동기라는 명칭은 Deci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Deci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내재-외재적 동기의 구분으로 시작한 요인구조가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의 구분으로 변화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재동기와 외재동기를 구별하는 것은 지각된 통제 소재로서 행동의 근원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내적으로부터 외적에 이르는 연속선 위에 존재한다. 한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자율동기와 타율동기를 구분하는 근거는 행동조절의 주체가 행위자 자신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내재-외재의 구분은 선택의 소재가 핵심이지만 자율-타율의 구분은 행위주체가 핵심이다.

둘째, 본 척도에서 제시된 자율동기란 자신의 잠재력 발휘 및 개인성장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타율동기란 타인에게 인정받음의 추구 또는 비판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본 척도에서 자율적 동기는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통합적 조절과 관련된 것은 9문항이었고, 동일시 조절은 6문항, 내사조절은 3문항, 내재적 동기는 1문항에 해당하였다. 문항의 구성 비중이 높았던 통합적 조절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긍정적이며 생산적으로 성장하려는 동기유형을 말한다. 자율적 동기 문항들의 주요내용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정치적 안정 및 능력발휘와 같은 기본적 삶의 안정성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한편, 타율적 동기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내사조절과 관련된 것은 5문항이었고, 외적조절은 3문항, 무동기는 3문항에 해당하였다. 이 중에서 문항

의 구성 비중이 높은 내사조절이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려는 동기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항들의 주요내용은 절박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고 싶은 욕구와 사회적 분위기 동조 및 가족상봉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즉 연대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척도의 문항 및 자기결정성이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Deci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 탐색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를 개념화하고 탈북동기 구성요인들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척도의 요인구조는 자율적 동기, 타율적 동기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동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추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향후 탈북동기척도의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탈북민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까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재복지 출신지역, 직업, 학력 등 계층별 대상에 대한 무선표집에 한계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보다 다양화하고, 표집수를 높여 표집 오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표집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계층에 따라 학습 경험이나 인문학적 소양에 차이가 극심하여 문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에 근거하여 탈북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제작을 목표로 하였으나 연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은 표집 접근성이 쉽지 않은 대상으로 입국 시기와 체류기간, 연령 등 대상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상자 간의 상이성에 의해 측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며 추후 연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용 탈북동기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북한식 통치방식에서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기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자기보고용 척도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자(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 및 정신건강서비스 관련자(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정신과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가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이들의 탈북동기를 측정하는 담당자 보고형 탈북동

기 척도개발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탈북동기 척도를 토대로 하여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최근 남한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동향을 보면 과거의 생활고, 체제불만, 차별우려 등의 도피성 탈북보다는 자유동경, 자녀교육 등의 자발적 선택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민형 탈북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의 탈북동기 수준을 면밀히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탈북동기는 고정된 성격특성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도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제 3국을 경유, 남한에 정착하는 시기별로 이들의 탈북동기 발달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변화과정 연구를 통해 북한 탈출 이후 제 3국 경유지역과 남한사회 정착기간에 따라 단계별 정착지원 개입목표와 방법에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심리적 외상과 적응의 매개과정으로서 탈북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 제출: 4월 27일 ■ 심사: 5월 16일 ■ 채택: 6월 7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남북하나재단. 『2016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김주환·김민규·홍세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Deci, E. L. and R. M. Ryan.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S.: University Rochester Press, 2002.
 Gorsuch, R. L.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LEA, 1983.
 Reeve, J.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London: John Wiley & Sons, 2014.

2. 논문

-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호, 2000.
 박병기·이종욱·홍승표.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제19권 3호, 2005.
 박철욱.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신현균·김희영·임지영.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9권 3호, 2010.
- 신행우·이종한·한성열·허태균·채정민. “이문화권 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1호, 2004.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2009.
- 임소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예측모형: 심리적 외상-회복력 통합모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자료집』. 2000년 1호, 2000.
- 정정애·손영철·이정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 조영아·김연희·유시은.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1호, 2009.
- 허지연.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 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Fabrigar, L. R., D. T. Wegener, R. C. MacCallum, and E. J. Strahan,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Vol. 4, No. 3. 1999.
- Ferguson, E., and T. Cox,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users’ guide.”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Vol. 1 No. 2. 1993.
- Hetzl, R. D. “A primer on factor analysis with comments on patterns of practice and reporting.” *Advances in social science methodology*. Vol. 4. 1996.
- Ryan, R. M. and J. P. Connell,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5. 1989.

Abstract

Development of a Defecting Motivation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Young-Chul Son & Jeong-Yi R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taxonomy of motivational type of Deci can be applied to North Korean defector motives. To do this, we developed 105 preliminary questions that included vivid verbal statements of North Korean residents through open questions, group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on 309 North Korean defectors(183 men and 126 women). Then, completion of 63 questionnaires through test of the content valid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58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used to extract 2 factor structures 38 items from the two factor structure.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l validity, the eight items were deleted and the final scale of 30 defecting motives was derived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actor structure of North Korean defectors' defecting motivation scale consisted of two sub — factors of 'autonomous motivation' and 'controlled motivation'. In other words,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do not ha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defectors' diversity of the type of defecting motive. As a result, it is proved that the motivation of defection is not a concept that can be measured on a continuous line according to the degree of autonomy(self-determinism). The motivation scale of defecting the North Korea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appropriately used to study the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the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Defecting Motivation Scale, Self-determinism